



제05호 / '15.6.1(월)

지부교섭 속보

기본급 159,900원 인상
유급 대체휴무 쟁취
실질적 위험성평가 시행!

발행처: 선전부 | 발행인: 조민제 | 주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 전화: 043-236-5077 | http://dc.kmwu.kr

의미없는 1차 제시안

형식적인 제시안에 그쳐

6차 교섭만에 첫 제시안

5월 28일(목) 코스모링크에서 6차 지부교섭이 열렸다. 이 날은 사측의 첫 번째 제시안이 나왔다. 물론 첫 제시안이라 내용이 아주 미흡하다. 사측도 스스로 의무감에 제시했다고 할만큼 검토할만한 내용이 없었다.

1차 제시안

1. 2015년 임금인상

추후 각 회사별 제시

2. 유급휴일

설날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가 일요일과 중복시 노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다. 단, 각 사별 단협이 이보다 상회할 경우 각 사의 단협에 따른다.

3. 위험성 평가

- 1) 회사는 산업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산업재해 감소 대책을 수립한다.
- 2) 제1항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노사 협의로 정한다.

유급휴일 중복되는 경우 많지도 않다

사측은 유급휴일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지 않은 것 같다. 지부가 요구한 날 중 어린이날은 아예 빼버렸다. 거기다 설, 추석연휴도 '일요일'과 중복될 때만 노사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고 제시안을 냈다. 2020년까지 설,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중복되는 경우는 겨우 4번이다. 1년에 하루꼴도 안된다. 지부 요구안이 정부 관공서 규정 수준밖에 안되는데도 그걸 또 줄이려고 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위험성평가에 대해서는 현장노동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에는 노사 모두 공감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부는 기존 체계를 활용하면서도 충분히 실질적인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조언했다.

성의있는 제시안이 필요하다

사측은 매 교섭 때마다 교섭 빨리 마무리하자고 한다. 그러나 제시안은 아주 형편없다. 사측이 조기타결의 의지를 보이려면 성의있는 제시안을 가져와야 한다. 지부는 사측이 성의있게 나오면 얼마든지 교섭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다. 사측의 다음 제시안을 기대해본다.

6차 교섭 속기록

노사 공동으로 해야 위험성평가 효과적

사 : 연일 폭염 속에 멀리 오느라 수고하셨다.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빨리 노사협약이 이뤄지면 좋겠다. 좀 더 심기일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타결을 보고, 요새 경기도 안좋은데 일하는 분위기로 가면 좋겠다.

노 : 날씨가 정말 뜨겁다. 서울에서는 노동부가 노동연구원 앞세워서 임금피크제 관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공청회가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단상 점거하면서 공청회가 진행이 못되고 있다. 정부가 너무나 지나치게 노사관계에 깊이 개입하려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려가 크다. 이대로 가면 정면충돌이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다. 지부교섭 관련해서는 지난주 보쉬가 교섭에 참여를 못했는데, 지회에도 통보를 안했다.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면 좋겠다. 지부장으로서 빨리 교섭 마치고 싶다. 임단협은 임단협이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지가 있으니 사측도 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면 빨리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성실히 안을 제시해달라. 제시안 마련되었나?

사 :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을 내기 머쓱하다. 안 제출하겠다. 매번 교섭을 하지만, 타결시점이라는 걸 어느 정도 중앙교섭과 맞추다 보니 안을 내야하는 의무감에 내고 있으니 받아주면 좋겠다.

〈안 검토를 위한 정화〉

노 : 유급휴일에 어린이날이 빠졌다. 실수한건가?

사 : 뻘다. 어린이날은 이미 각 사별로 상회하는 곳도 있어서 이걸 정리가 안끝났다. 각 사별로 토, 일요일 외에 약정휴일이 다른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확실히 지부교섭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었다. 휴일 규

정을 딱 못박은 경우도 있고 그때 그때 노사협의로 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마다 사정에 따라 다르다. 상향하기도 낮출 수도 없어서 일단 이렇게 냈다. 내용적으로 좀 더 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노 : 1차 제시안이라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유급휴일에 대해 결정하고 나면 업무스케줄에 따라 노사간 협의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유급휴일은 명확히 해야 할 것 같다. 위험성 평가 관련 제시안 얘기하자.

사 : 중앙교섭 내용을 따르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중앙교섭에도 의견을 내고 결론을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 지역이 선도적으로 내기엔 부담감이 있다. 전체적 의견은 위험성 평가는 노조가 요구하지 않아도 사용자가 먼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노사위원이 임명되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하는 애로사항이 있다. 중앙교섭에서 윤곽이 잡히면 거기에 맞춰서 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노 : 핵심은 안전문제다.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실행은 기존의 틀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부담가질 필요 없을 문제다. 안전문제를 노조와 같이 할 때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사 : 직원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건 조합과 똑같이 생각한다. 단지 위원회 운영방법에 이견이 있다. 기존 산보위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면 쉽게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좀 더 고민해보겠다.

노 : 제시한 안은 안타깝게도 수용하기 힘들다. 더 성의있는 제시안 부탁한다.

*** 차기 교섭 :** 6/4(목) 14시 한라비스테온공조